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7.3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국제금진주의연구소(ICSR)

- **英 싱크탱크, 유럽 내 테러 수감자 20년來 최대 발표(7.24)**
 - 現在 유럽 10개국에서 테러 관련 혐의로 1,400명* 이상이 수감되어 최근 20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, 이들은 지하디스트 82%, 극우주의자 7%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
 - * 프랑스(549) > 스페인(329) > 영국(238) > 벨기에(136) > 스웨덴(53) > 네덜란드(36) 順
- **유럽, 새로운 형태의 '新나치주의' 온라인 확산 우려**
 - 7.27 英 언론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각국의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新나치주의 단체들이 등장, 구성원들은 SNS에서 이데올로기 및 공격 계획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
 - * 英 정부는 백인우월주의단체 FKD(Feuerkrieg Division)를 금지단체로 지정하였으나, 온라인에서 반이민·외국인 혐오 정서를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 中

미주

- **美, 刑 만료 후 무기한 구금 예정이었던 테러 지원범 추방**
 - 7.22 美 행정부는 형기를 만료한 팔레스타인계 無국적 테러 지원범 「아담 하산」(58세)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애국자법을 근거로 무기한 구금하고자 하였으나, 법원의 석방 명령(6.29)에 따라 추방했다고 발표
 - * 同人은 이슬람 극단주의단체에 물질적 지원을 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였으나, 출소 후 추방할 본국이 없어 美 정부에서 무기한 구금을 추진
- **캐나다, ISIS 가담자 테러 혐의로 기소**
 - 7.22 캐나다 연방경찰은 '13.5월~'14.6월 시리아에서 ISIS에 가입하여 훈련을 받고 납치에 가담한 「후세인 보호트」(34세)를 7년간의 수사 끝에 테러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

아 · 태평양

- 「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」 개최(7.27, 국무총리 주재)
 - 위원회에서는 △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, △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, △軍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 등을 의결하였고, 외국인 관리 강화와 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논의
- UN, 西아시아 일대 인도 알카에다(AQIS)* 세력 확장 우려
 - 7.25 UN은 국제테러단체 분석보고서를 통해 인도·아프간·파키스탄 등 西아시아 일대에서 AQIS 세력 확장을 우려, 특히 인도에서 前 지도자 「아심 우마르」(19.9 사살)의 보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
 - * 서남아 지역 세속주의 정권 타도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('14.9)된 단체, 미국('16.7)·호주('16.11)·캐나다('16.12)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
중 동

- 아프간, 민간인 사상자 전년 대비 13% 감소
 - 7.27 유엔아프간지원단(UNAMA)은 올 1~6월 아프간內 민간인 사상자 수가 총 3,458명으로 전년 대비 13% 감소(3,973명)하였으며, 이는 ISIS와의 전투가 줄어들면서 희생자가 감소하였다고 발표
 - *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, 정부군-탈레반에 의한 사상자 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

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 대통령, 보코하람의 국제구호기구 요원 납치·살해 강력비난
 - 7.22 보코하람이 보르노州에서 납치한 국제구호기구 요원 5명의 살해 동영상을 공개하자, 「모하마두 부하리」 대통령은 “마지막 한 명까지 끌어내 버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하겠다”고 발표
 - * 보코하람은 구호요원 살해 前 몸값으로 50만달러(약6억원) 요구

이집트 휴양도시 연쇄 차량 폭탄테러

- '05.7.23, 01:15경(현지시간 기준)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휴양도시 '샤름 엘 셰이크(Sharm el Sheikh)'에서 연쇄 차량 폭탄테러 발생(사망 88, 부상 150)
 - 전통시장인 '올드 마켓'에서 최초 폭발 후 번화가 '나마 베이' 소재 4성급 호텔 '가잘라 가든스'에서 2차 차량돌진 폭발이 발생, 영국·독일·터키·미국 출신 등의 다수 외국인 사상자 초래
 - 마지막 3차 폭발은 '피벤피크 호텔'에서 발생
- 사건 직후 알 카에다 연계조직 '압둘라 아잠 여단(Abdullah Azzam Brigades)'은 성명을 통해 同 테러의 배후를 자처
 - 이후 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 '무자헤딘 미스르(Mujahidin of Egypt)'도 同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- 「코피 아난」 UN 사무총장은 테러와 무차별적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슬픔과 분노를 표출
 - 한편, 경제전문지는 同 테러로 이 지역 예약 항공편의 약 90%가 취소되었고, 경제적 손실이 최대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

— < ISIS-서아프리카 지부(ISWAP) > —

- (목표) 나이지리아·니제르·카메룬·차드 등 서아프리카內 샤리아(이슬람 율법)에 기반하는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
- (결성·규모) '16.8월, 약 4,000명
- (활동수법) 정부군·시설 공격 및 기독교도·외국인 등 대상 납치·살해 자행
- (특징) 지도자 「아부 압둘라 이븐 우마르 알 바르나위」는 보코하람의 무슬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비난, 기독교인 대상 공격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하며 선명성 강조